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희



저녁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이 우아한 가구를 구경하다 고풍스런 의자에 앉았다. 순간 의자가 무너지면서 손님도 같이 넘어졌다. 며칠 후 낯선 변호사로부터 손님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의자를 파손한 책임으로 2주일 내에 200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임.”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뜨거운 커피에 입술을 데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집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사 수가 백만에 달하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자가 많다고 해서 법률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다. 보수도 소가(訴價)에 따라 정하는 우리와 달리, 시간제나 성공조건부가 일반적이다. 시간은 변호사가 연장시키는 것이 상례며, 전화요금, 업무상 여행경비까지 포함시킨다. 성공보수도 명성있는 로펌의 경우 50%에 이른다.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앞으로 회원들이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경우비를 내도록 결의한 바 있

다. 아직까지 변호사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부산이나 대구 등의 경우와 균형을 맞춘 것이었다. 우연히 일간지 사회면에 이러한 일이 보도되자 법무사회로부터 강력한 항의

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법사들의 형편이 어려운데 먹고 살만한 변호사들이 등기사무까지 넘본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영·미·독·불에는 없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계다가 17만여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까지 유사법조직역으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유사법조직역까지 포함하면 우리 법조인 수는 선진국에 비해 넘쳐나고 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 소송대리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를 하는 등 단단히 변호사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법안과 관련, 매년 변호사 3000

명 배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위 유사법조직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 우리보다 인구가 3배, 경제력이 8배인 일본의 경우 급년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1,600명만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1000명은 사실 공급과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세계적인 일본의 법학수준으로도 로스쿨은 준비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래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식 대형 로펌이라는 사

보수는 높아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 결국 의뢰인들은 모두 외국 로펌으로 몰릴 것이다. 그러다가 10여년 후 국내 송무 시장까지 영미계 로펌이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식 보수체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변호사의 보수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사마천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사람들은 의식이 풍족해지면 영욕(榮辱)을 아는 법이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소송부추김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엔나처럼 돈벌이를 위해 교묘한 말로 불화를 조성하고 소송을 일으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는 탐욕스러운 변호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법치주의 확립은 변호사수의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다카하시 히로시 도쿄대 법학부장도 “법조인이 급격히 늘어나면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제 사법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미국식 로스쿨에 대한 환상이나, 변호사 수를 늘리면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은 버릴 때도 되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 법률시장

회교육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3년의 교육만 받고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년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은 법률시장 개방 후 완전히 영미계 로펌에 장악되어 버렸다. 우리의 경우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은 우수한 변호사들만을 고용할 것이다. 법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보수가 낮다고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가. 변호사의

시설

獨島위기 해소는 미봉책...EEZ획정 나서라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일 외무차관이 독도해저 측량에 따른 양국 대치상황을 해소하는 합의를 이룸으로써 일촉즉발로 치달던 위기는 일단 가라앉았다. 일본은 측량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은 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한 IHO(국제수리기구)지명 등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합의를 자랑스레 발표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본은 IHO측에 탐사계획을 통보한 6월 말까지 탐사를 중지한다고 합의문이 명기했다. 7월부터 탐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우리측은 독도해저의 지명을 한국식 명칭으로 등재신청하는 행위를 ‘적절함’ 시기에 하기 못했다. ‘일단 중지’한 것이다.

일본은 1978년부터 독도 부근 수역에 대해 자국 지명 IHO 등재를 추진해왔으며 ‘쓰시마 분지’와 ‘순요리’ 등 이미 두 곳에 일본식 이름을 등재하고 공동화했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뒤늦게 파악, 작년에 일본식 지명이 불은 두 지역을 ‘울릉 분지’와 ‘이사부 해산’이라고 명명하는 등 18곳의 해저지형에 한국식 이름을 붙이고 IHO에 등재하려 했지만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양국 차관의 합의가 일본측에 더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예외주의하던 중국 언론들도 이번 차관회담은 일본의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수역)가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일찌기 지적했다. 한일 EEZ 협상은 1996년에 시작해 4차례 열렸으나 2000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개한다는 EEZ협상에서 독도 동부해역에 대한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바란다.

冊의 날에 생각해보는 우리의 독서 생활

어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인의 책 외면 현상은 심각하다.

우리 국민의 독서열이 낮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인터넷 신문인 미디어 캠퍼스가 최근 전국 대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가 한달에 1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읽는 책도 무협 판타지에 편중되는 등 독서의 질 저하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당 서적·인쇄물 구입비는 월 평균 1만397원에 불과하다는 조사는 충격적이다. 신문구독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된다고 한다. 책의 사망이자 지식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화수도 광주의 독서 자화상도 초라

하기 그지없다. 광주지역 12개 공공도서관 중 절반이 넘는 7곳의 보유장서가 법정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권역별로 4곳의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서관 숫자는 늘리면서 장서 구입에는 인색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도서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배가될 수 밖에 없다. 세상이 디지털화 될수록 지식과 정보의 필요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온라인 문화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지식자산 경쟁력이 높아질리 만무하다. 독서의 몰락은 정신의 황폐로 이어지며 문화의 속물화를 재촉한다. 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민·관이 나서야 한다.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한 공공도서관을 크게 늘리고 도서관구입비도 확충하는 등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無等鼓

1971년 7월 1일 백악관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는 아시아 방문길에 나섰다. 문제는 마지막 방문국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 키신저가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을 앓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파키스탄 산간 별장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키신저의 칭병(稱病)은 보도진을 따돌리려는 연막이었다. 파키스탄 산간에 자신을 닮은 인물을 보낸 그는 허말라야 산맥을 넘어 ‘죽(竹)의 장막’으로 잠행했다.

그는 7월 9일 새벽 수행원 3명만을 데리고 베이징공항에 도착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가 키신저의 중국행을 감시했지만 이 세계적 특종은 본사 편집진에 의해 묵살됐다.

어쨌거나 키신저는 이날부터 3일동안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머리를 맞대고 20세기 최대의 역사 반전인 ‘중미 화해’의 물꼬를 텄다. 이후 중국 지도자들의 미국 방문은 순탄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덩샤오핑(鄧小平)이나 장쩌민(江澤民)은 미국 방문을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미국인들에게 선전했다.

중국이 지금 들끓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미국 방문(18일~21일) 기간 동안 후 주석이 받은 무례 때문이다. 중국 언론은 이번 중미 정상회담을 ‘8육(辱) 3무(無)’의 치욕으로 규정했다. ‘8육’은 백악관에 중국 국기인 둘러려는 연막이었다. 파키스탄 산간에 자신을 닮은 인물을 보낸 그는 허말라야 산맥을 넘어 ‘죽(竹)의 장막’으로 잠행했다.

“3무”는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무례·무우의(友誼)·무합의로 얼룩진 것을 총칭한다.

이런 가운데 후 주석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종차별을 비난하며 시성(詩聖) 두보의 ‘태산을 바라보며’(望廬)의 끝 구절, ‘언젠가 정상에 올라 뿔산들의 자그마함을 굽어보리라’는 부분이다. 미국의 무례를 한 구절의 시로 반전시킨 후진타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오승주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후진타오의 자신감



기고

김정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사업은 서남해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근 전남도 세계기업도시 방문단의 일원으로 일본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왔다.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의 첫 방문지는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모방해 만든 ‘도쿄디즈니랜드’. 평일에도 2만명의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번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온다는 것이다. 메인이벤트인 페어리드는 장관이었다. 매일 주제를 달리하는 페어리드만

아서 만든 호수에서 날아다니는 새들, 특히 홍학의 보호구역이라고 한다. 호수를 막아서 새들이 자유로이 거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빨라바스 동쪽인 ‘그랑모트’로 향했다. 모래해안을 끼고 호안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가장 중심에 카지노가 서있다. 아마도 카지노가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표시로 보였다. 안에는 퇴직한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가끔은 젊은이도 보이지만 이들은 카지노는 도박이 아니라 오락으로 여기는 표정이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쉐넬리로 향했다. 1974년 호텔과 카지노가 설립됐다. 여기서는 마음대로 골프와 카지노를 즐길 수 있다.

J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다

을 보려고 이곳을 방문하는 마니아도 많이 생겼다고 한다. J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본인의 문화를 심도있게 연구해 그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실내해수욕장 등이 갖춰진 ‘미야자키 오션플’도 둘러봤다.

오션플은 길이 300m, 너비 100m, 높이 38m의 해수욕장이다. 수용인원이 1만 5천명인데 입장객은 100여명도 되지 않아 보였다. 1993년 4천억 원을 투자해 지었다는 데 일정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대도시와 멀어 지금은 돈만 들고 별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계류’의 신세가 됐다는 설명이었다. 도시와 떨어진 영암·해남 일원에서 추진되는 J프로젝트에 어떤 매력을 만들어 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 곳이었다. 다음은 프랑스 ‘빨라바스’. 바다를 막

성공을 거둔 세계적 관광지 리조트를 둘러보면서 느낀 공통점은 ‘불가능요소’를 사람의 힘으로 가능토록 바꾸는 노력이 배어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와 떨어져 한적한 곳이라더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J프로젝트 사업지구는 고유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광활한 평지와 영암·금호호 등 두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어 숲을 조성해 그늘을 만들고 물을 이용하여 해양레저와 인공호수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레저문화를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투자와 창조적인 기업정신이 뒷받침된다면 J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해남군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정책지원팀>

각종 상품권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며칠 전 집 근처의 서점에 들러 책을 사고 문화상품권으로 책값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문화상품권인데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느냐며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간 사람은 없다는 것. 문화상품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뒷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자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서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과거보다 투명해져 공평과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품권을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지를 잘 보려는 것 같다.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여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자영업자들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으면 한다.

▲임정화·광주시 동구 총장동

기고

박양신



현대의술이 발전됐다 해도 여전히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이 있다. 각각 혼탁에 의한 실명, 만성 신부전증, 간장기능부전증, 췌장부전증, 백혈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질병은 ‘장기이식’을 통해 치료 가능하다. 장기이식 수술은 어떠한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각종 말기질환 환자의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이다. 장기이식 수술은 ‘그 누군가가’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장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장기이식은 크게 뇌사사, 생존사, 사후사 기증으로 나뉜다. 먼저, 뇌사사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각막·심장·폐장·간장·췌장·피부·뼈 등이다. 우리

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장기기증 활성화의 이유다.

장기이식 수술 사례가 적은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 부족 탓이다. ‘장기 기증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외국과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의지를 활용해 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것, 어릴 때부터 눈높이에 맞는 장기기증 관련 교육, 쉽게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미진 병실에서

생활속의 장기기증

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뇌사자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음은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로, 골수·신장·간장 등이다. 이 경우에는 병력이 없어야 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가 없는 순수한 동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기증은 각막·시신·뼈 등이 가능하다. 각각기증은 사후 6~12시간 내에 가능하고 시신기증은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에 기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 비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골수의 경우 매년 4천여명의 환자가 새로 생겨나지만 실제 골수이식 수술 사례는 미미하다. 신장이식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공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 그들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기이식을 에타게 기다리고 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소중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수년째 장기기증 운동의 실무자로 일하면서 기증자 측이 ‘수혜자가 고맙다는 편지를 전해왔다’면서 웃을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그 죽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송고하고 아름다운 나눔이 바로 장기기증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간사〉

지하철은 개인 승용차가 아니다

백화점에 가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계단을 밟고 달려 승강장으로 내려오더니 전동차를 탔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전동차 안에서 한쪽 발을 지하철 문으로 내밀면서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 ‘빨리 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전동차 문이 닫히면서 뒤따라 내려오던 젊은 여자 등 일행 세 명이 미처 타지 못했다. 급기야 이 아주머니는 핸드백을 달리는 문 사이에 다시 넣었으나 전동차 문

이 조금 열렸다 닫히면서 결국 이들을 태우지 못했다.

이 아주머니는 그러나 지하철에 탄 나머지 승객들에게 반성하는 기색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일행과 함께 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쳐다보고 있던 우리집 아이. 뭘 배웠을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하철은 개인의 자가용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